Title: the book of Titus – Sermon 7: Sermon Notes
Scripture: Titus Titus 3:1-3
Date preached: February 20th 2022

Scripture: Titus 3:1-3
1 Remind them to be subject to rulers and authorities, to obey, to be ready for every good work, 2 to speak evil of no one, to be peaceable, gentle, showing all humility to all men. 3 For we ourselves were also once foolish, disobedient, deceived, serving various lusts and pleasures, living in malice and envy, hateful and hating one another. **1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 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2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Review
Last time we considered in some detail our motivation for being good Christians. There may be many factors that influence how we behave. For example, most of us think it is important that people see us in a favourable way. We want to be liked, respected and admired by others. Therefore we act in a way that earns the respect of those around us. In practical terms this means that we try to be valuable and productive members of society. We work hard, bring up our children well and are agreeable and respectful of others. Another strong motivator for our behaviour is our natural desire to fit in and not stand out.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countries or cultures that are more collectivistic in their outlook. In such cultures there is the strong desire to consider the wider society and not to be selfish or individualistic. In such cultures people suppress their own desires and act in ways that benefit the broader society. So there are many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at shape the way we act.

Paul in his letter to Titus of course is thinking beyond the factors that make us behave well here on earth. Titus is preparing those in his charge not only for their life here on earth, but for all eternity. So, Paul wants Titus to instruct them on what should be their motivation for being good people. It's not that they are respected or admired by others. It's not that they fit in well in their communities. It's not that they can have comfortable stress free lives. What should make them desire to be good and godly people is God's grace or his undeserved kindness. When we fully appreciate what God did for miserable sinners like us it should make us stop and think.

It should make us consider what response God's grace ought to illicit from us. In this regard grace is like a teacher. Good teachers encourage us take notice and see things in ways perhaps we had not before.

When we fully appreciate the sacrifice that Jesus made for us we should be motivated to be better people. It should motivate us to say “no” to the things that God hates (ungodliness). It ought to encourage us to flee from temptation. It should motivate us to resist the worldly lusts around us. The world may chase after money, pleasure and the satisfaction of their carnal desires. But as followers of Christ we must rise above such things. We are not to be focused solely on the here and now, but are instead to have an eternal perspective.

Therefore we are to live good lives whilst we are here on earth. We are to be self-controlled, modest, self-restrained and righteous. We are to live in this way as we eagerly anticipate the return of our Lord and saviour. We do not want Him to return to find us living a shameful, sin filled life.

Whilst we are waiting for Christ's return we are to be eager to do good works. In every age there is plenty of work to be done for God's kingdom. There are always widows and orphans who need care. There is always evil and wickedness to be combatted. And there are always people who need to hear the gospel message. Therefore we are called to live good lives and positively influence the world around us.

Today Paul will talk about how grace should motivate us to behave in the societies in which we live. Simply put we might rephrase it, how am I to live and operate as a Christian.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은 사람들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가치 있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다른 사람을 호의적이고 존중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동기는 눈에 띄지 않고 잘 어울리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다 집단주의적인 국가나 문화에서 특히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화에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더 넓은 사회를 고려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더 넓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내부 및 외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행동하게 하는 요인을 넘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투스는 이 자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선한 사람들을 위한 동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 □□□ □□□□□ □□ □□□□□. 그들이 지역 사회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고 경건한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과분한 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온전히 감사할 때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을 나타□□□□□ □□□□□ □□□□□□□ □□□□ . 이 점에서 은혜는 교사와 같습니다. 좋은 교사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사물을 보도록 격려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온전히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혹을 피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적인 정욕에 저항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쾌락과 육욕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제하고 겸손하며 자제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이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끄럽고 죄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선행을 열망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보살핌이 필요한 과부와 고아가 있습니다. 항상 싸워야 할 악과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삶을 살고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활동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Introduction

We are very fortunate to be believers living in South Korea. God in His grace and mercy has given us a good place in which to live and practice our faith. Too often we take the freedoms we have for granted. We are so fortunate that we do not face persecution or harassment from the government or society at large. We can freely and openly live and practice our faith. We are able do good, and impact the world around us. Many around the world do not enjoy the things we take for granted. So I urge you to please keep the persecuted church in your prayers.

The Christians living on Crete in Paul's day had a difficult existence. They were living under Roman rule and the Romans had issues with Christianity. The problem, when simplified was that the Greeks and the Romans were not monotheistic. They embraced and welcomed a large numbers of gods and did not want to single any particular god out as being special. This meant for a largely peaceful empire. As long as you were tolerant of others, and agreed to worship the emperor you could devote yourself to whatever god you chose.

All beliefs, or religious systems were tolerated and considered equal. It was a system that everyone, or nearly everyone in the Roman empire brought into. The two groups that could never embrace a polytheistic world-view were of course the Jews and Christians. Christians would not worship other gods, and certainly would not bow to the emperor. This meant that the authorities saw them as a potential threat. Would their ideas spread and lead to revolution? This fear resulted in the authorities keeping a close eye on Christians.

Christians were also of great interest to their pagan neighbours. Here was a new group of people who claimed to have the truth. They followed a set of beliefs that promoted love, toleration and respect for all. Naturally then Christians were watched to see how well they matched up to the ideals they preached.

So in today's passage Paul writes to Titus to instruct him on how we should act in regard to those in authority over us and to our non-believing neighbours.

우리는 한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매우 행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믿음을 실천하고 살기에 좋은 곳을 주셨습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당연시합니다. 정부나 사회 전반에서 박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팝박받는 교회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시대에 그레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고 로마인들은 기독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화했을 때 문제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일신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수의 신을 포용하고 환영했으며 특정 신을 특별한 것으로 지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평화로운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황제를 숭배하기로 동의하는 한, 당신이 선택한 신에게 자신을 바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이나 종교 체계는 용인되고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 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도입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신론적 세계관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두 집단은 물론 유대인과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며 확실히 황제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국이 그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확산되어 혁명으로 이어질까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들의 이교도 이웃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 대한 사랑, 관용 및 존중을 장려하는 일련의 신념을 따랐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전파한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1 Remind them to be subject to rulers and authorities, to obey, to be ready for every good work,

Paul's first instruction is for Titus to give a reminder to those in his charge. The fact that they are to be reminded tells us two things. Firstly that they already know these things. We cannot be reminded of something we do not know. So clearly Paul had spoken to them about these issues when he had been preaching on Crete. The second thing it tells us is that they had forgotten what they had been told. I don't need to remind my daughter to brush her teeth when she diligently does it every day! The sad truth is that we frequently need to be reminded of what we once knew but may have

forgotten. What is it then that Titus is to remind them?

It is that they are to be **subject to rulers and authorities**. The word “subject” here is the Greek word *hupotassō* (hoop-ot-as'-so). It means, "to come under the authority of," "or to obey."
Who is it we are to come under the authority of? We are to obey the **rulers** and **authorities** that are put in place over us. In the King James bible this is rendered “principalities and powers.” It refers to those in positions of authority and power. Today we call such people councillors, magistrates, local government or civil leaders. Basically it refers to all forms and levels of human government. In Paul's day there were Roman provincial governors and above them the emperor himself.

Now let us for a moment think about the situation for those living on ancient Crete. Historians tell us that they were not very happy with life under Roman rule. No doubt they wished just like the Jews in Palestine to be free. I'm sure they wished they could devise their own laws and not be subject to Roman occupation and taxes. According to the historians Polybius and Plutarch the Cretans were inclined to revolt. We have spoken before about the character of the people of crete, so it's not a stretch to think that such people harbored rebellious tendencies. I think we can imagine there being resentment and anger bubbling away under the surface. In such a situation it would be common to challenge Roman laws, to disobey the rules and to be an uncooperative, rebellious citizen.

Christians too would have had these same feelings of resentment and unease. They too may have been tempted to be rebellious and resist the power of the state. However Paul tells Titus that this was not the way that Christians should behave. They are called upon to set a good example to others and willingly obey those in authority. I like what one of the commentaries on this passage said about our Christian duty to government. We are to, “obey, pay and pray.” We are to willingly obey the laws of the land. We are to pay our taxes without complaint. We are to pray for those in authority over us. Why are we to act in this way? The reason is that it is God who has placed these people in charge. As Paul writes in Romans;

Let every soul be subjec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 and the authorities that exist are appointed by God. (Romans 13:1)

Now some may raise an objection here and ask about exceptions. People are always keen to find loopholes or exceptions. So they ask, are we still called to submit and obey wicked or bad rulers? What about if government laws go against our conscience? These are good questions and specific situations may need careful consideration. In general however the bible's teaching is plain. As long as the laws of the land do not contradict the laws of God, we should be perfectly willing to obey them.
However when human authorities and the laws they pass contradict God's laws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en (Acts 5:29).

Paul then goes on to talk about our duty **to be ready for every good work.** We should as believers willingly obey our rulers in a passive way. We might however be content to live peacefully and do very little to help those around us. I think this is the attitude of most believers. Paul tells us here that such an attitude is a negation of our Christian duty. We should always b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love, help, support and encourage. Now our good works may be connected to the church. But we should not be limited only to helping the church or things connected to the church. So if the church runs a soup kitchen for the homeless it would be good to volunteer to help. Equally, it is beneficial to the community if you volunteer to help with a reading program in the local library. The message is basically this; look for ways to help and then help.

We all live in communities in which we should demonstrate the love of Christ through our efforts. Christians have always excelled in this area. Providing food and shelter for the homeless and building orphanages are some obvious examples. No follower of Christ ought to be urged, coaxed or compelled to do good works. They instead should see it as a great joy and blessing to be able to share Christ's love to others. Let us see what Paul has to say about our treatment of those around us.

바울의 첫 번째 지시는 디도에게 그의 책임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그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에서 설교할 때 이 문제들에 대해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것은 그들이 들은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딸이 매일 부지런히 이를 닦을 때 이를 닦으라고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한때 알았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을 자주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Titus 가 그들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제"라는 단어는 헬라어 hupotassō (hoop-ot-as'-so) 입니다. 그것은 "의 권위 아래에 오다", "순종하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통치자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권위와 권세"로 번역합니다. 권위와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시의원, 치안판사, 지방 정부 또는 시민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간 정부의 모든 형태와 수준을 의미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의 속주 총독들이 있었고 그 위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대 그레데에 사는사람들의 황에 대해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 역사가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생활하는 것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법을 고안하고 로마의 점령과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Polybius)와 플루타르코스(Plutarch)에 따르면 크레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는 크레타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전에 이야기 했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반항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원한과 분노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로마 법에 도전하고 규칙에 불순종하며 비협조적이고 반항적인 시민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분노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반항하고 국가의 권력에 저항하려는 유혹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순종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한 한 주석이 정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지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땅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것처럼, 모든 영혼이 통치하는 권위에 복종하게 하십시오.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1) 이제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예외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 허점이나예외를 찾고 싶어합니다 .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악하거나 나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복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정부 법률이 우리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좋은 질문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우리는 기꺼이 그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위와 그들이 통과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과 모순되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행 5:29).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통치자에게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데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거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돕고, 지지하고, 격려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행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돕는 일이나 교회와 관련

된 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한다면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돕는 자원 봉사를 하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될 방법을 찾은 다음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분야에서 탁월했습니다. 노숙자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고아원을 짓는 것이 몇 가지 분명한 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사람도 선한 일을 하도록 재촉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을 큰 기□□□□□ □□□□ □□□□. 바울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to speak evil of no one, to be peaceable, gentle, showing all humility to all men.

It often amazes me how social media has changed and revolutionised our lives in such a short time. I grew up in a world without Twitter, Instagram, Facebook, YouTube and the many other forms of mass communication available today. So I struggle to understand why people invest so much time and effort people in them. Maybe I'm too old, but I just don't get the fascination. I mean who really cares what some celebrity is doing or what they think about an issue. One of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ocial media has been the rise of hate and vitriol against other users. When people can hide their true identity it often leads to incredible unkindness and cruelty. People threaten to destroy, kill, or hurt others just because they disagree with them about an often trivial issue. Social media is full of people speaking evilly about one another. Naturally as Christians this is not something we should do.

We are **to speak evil of no one**. This term “to speak evil” is the Greek word *blasphēmeō* (blas-fay-meh'-o). It means to speak evilly or badly about someone, or through lies to damage the reputation of someone (slander). We must never delight in "running people down" or speaking badly about them. We should also try to be **peaceable.** This is the Greek word *amachos* (am'-akh-os). In the King James bible it is translated as “brawler.” It really means that we are not to be fighting (verbally or physically) with our neighbors, we should not be contentious or quarrelsome people. Instead we should be **gentle** and **humble to all men**. I like the way this bible commentator summarises how we are to behave;

“Ready to yield personal advantage, eager to help the needy, kind to the weak, considerate toward the fallen, always filled with the spirit of sweet reasonableness” (Hendrilrsen)

This attitude, or disposition towards other people is not simply built upon our desire to be good neighbors. We treat other people with kindness and respect because we truly know who they are. Pagans believe that human beings evolved from ape like creatures. To them we are little more than highly intelligent animals. This is not reality. We were created by a loving God. We are the pinnacle of His awesome creation because we are designed and created in His image.
So we treat other people with love and kindness because, even though they may be wicked, mean or vindictive they are made in God's image.

In our final verse today Paul will remind us why we are to extend this love and kindness to others. It is because but for God's grace and mercy we once were just like them.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켰는지 나는 종종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형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매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말은 어떤 유명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다른 사용자에 대한 증오와 비난의 증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길 수 있을 때, 그것은 종종 엄청난 불친절과 잔인함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사소한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서로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악을 말하다"는 헬라어 blasphēmeō(blas-fay-meh'-o) 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거짓말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일이나 그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결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amachos(am'-akh-os) 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 그것은 "싸움꾼"으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웃과 (말로든, 육체적으로든) 다투지 않고,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성경 주석가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요약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인사를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궁핍한 사람을 도우려는 열심, 악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타사 락한 람을 배려하고 , 항상 감미로운 합리성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Hendrilrsen)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태도나 성향은 단순히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친절과 존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교도는 인간이 유인원과 같은 생물에서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지능이 높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설계되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친절로 대합니다. 비록 그들이 사악하고 비열하거나 보복적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한때 그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3 For we ourselves were also once foolish, disobedient, deceived, serving various lusts and pleasures, living in malice and envy, hateful and hating one another.

Because God's call to salvation comes at different times for different people Christians often have interesting histories. There are Christians who have been slave traders, serial killers, mass murders, abortionists, prostitutes, drug dealers, gang members, armed robbers and even you. God's will in the matter of election cannot be thwarted by men. If God determined to save you before anything else existed then you will be saved.

Paul's point here is obvious. Prior to receiving God's call you swam happily in the sea of your sins. Let us call our time before knowing Christ as "Before Christ" (BC). Let us term the time after we received God's call and fel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fter Christ" (AC). In your life BC your led a wicked and sinful life. I know that most people see themselves as being "good people," but that's not God's view. Our view is distorted, only God sees clearly. He sees that all men are evil and wicked. No man since the fall is able through their own efforts to save themselves. That was why He sent us a saviour. Now thanks to the Lord Jesus Christ things are different.

So now in your life AC you have been transformed, your old way of life and thinking is resigned to the past. When you look back on your own life BC I am sure that you can identify some of the things Paul highlights. I am sure that you held **foolish** ideas about things. Perhaps you believed in evolution, maybe you thought that abortion was okay. Prior to knowing Christ you were not greatly troubled by your sins. And you certainly did not understand the true nature of the God of the universe. Now you are enlightened and see things as God sees them.

In your life BC you were **disobedient**. You rebelled against God's authority. You did things the way you wanted. You were obstinate and selfish. Now you willingly submit and obey the Lord. In your life BC you were **deceived**. You were persuaded by things that were not true. Now you seek out what is true, what is lovely and what is holy and good.

In you life BC you were devoted to **satisfying the lusts of the flesh**. The desire for fame, prestige, honour, money, sex, power. The need to put your own pleasure and happiness before everything else. You allowed these things to master and control you. Now, with God's help you have mastered these things. It is you, not them in control.

In your life BC you lived in **malice** and **envy**. You hated that other people had things that you did not. You were jealous and bitter. You wanted the good things that God in His grace had given to others. Now you are content and happy with what you have.

Finally in your life BC you were full of **hatred**. You hated others and wished them nothing good. Now things are different. Because Christ loved you despite you being a miserable wretch you want to extend that love to others. Others may appear unlovable, but once so were you.

Next time Paul will explain why exactly it is that we can now live in this loving way towards others.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무역상, 연쇄 살인범, 대량 살인, 낙태 시술자, 매춘부, 마약상, 갱단원, 무장 강도, 심지어 당신까지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 방해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에 당신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죄의 바다에서 행복하게 헤엄쳤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이전"(BC)으로 알기 이전의 시대를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느낀 후의 시간을 "그리스도 이후"(AC)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당신의 삶에서 BC 당신은 사악하고 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대부분의사람들이 스스로를 "선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견해는 왜곡되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분명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악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봅니다. 타락 이후로 어떤사람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삶 AC 에서 당신은 변화되었고, 당신의 오래된 삶의 방식과 생각은 과거에 체념했습니다. BC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바울이 강조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이 사물에 대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진화를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낙태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로 인해 크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실히 우주의 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물을 봅니다. BC 주에서 당신은 불순종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했습니다. 당신은 완고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꺼이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BC 당신은 속았다. 당신은 사실이 아닌 것들에 설득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참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거룩하고 선한 것을 구하라. BC 주에서 당신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명성, 명예, 명예,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욕망.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당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것들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이 통제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BC 주에서 당신은 악의와 시기심 속에 살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갖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당신은 질투심이 많고 씁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마침내 BC 인생에서 당신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당신이 비

참한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때는 당신도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울은 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four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오늘 본문에 대해 4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 Be wary of your rebellious heart
As human beings our natural inclination is to be rebellious. This is because rebellion is rooted in pride. We don't like to be told what to do because we think we know best. We want to strongly resist anyone or anything that is trying to control us. What harm and damage this causes. When we rebel against those God has put in authority it only ever ends badly. In politics, it results in revolutions, military coups, instability and tyranny. In the home it leads to unhappy marriages, domestic violence and sometimes murder. Let us then be wary of our rebellious tendencies. Let us seek God's help in willingly submitting.

인간으로서 우리의 타고난 성향은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항의 뿌리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려는 그 누구라도 또는 무엇이든 강력하게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어떤 파해와 파해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에게 반역할 때 그것은 단지 나쁘게 끝날 뿐입니다. 정치에서는 혁명, 군사 쿠데타, 불안정 및 폭정을 초래합니다. 가정에서는 불행한 결혼 생활, 가정 폭력, 때로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역적인 경향을 조심하도록 합시다. 기꺼이 복종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2 Be ready and willing to do good
Let me give you a thought experiment. I want you to imagine that every Christian in Anyang was at all times ready and willing to do good. Not to just think about doing good but to actively engage in doing good. Imagine how our city could be transformed. Imagine what an impact we could have. Let us then be ready and willing to put our faith into action.

그래도 실험을 해보죠. 안양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모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상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기꺼이 합시다.

3 Speak evil of no one
James in his short letter talks about the power of the tongue. Such a small part of the body and yet so powerful. How easy it is to let it run out of control. How easy it is to let ourselves speak wicked and evil things about others. Others remember who are made in the likeness and image of God. Let us be careful not to speak evil of others.

야고보는 짧은 편지에서 혀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체의 작은 부분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악하고 사악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 □□□ □□□□□□.

4 Don't forget who you once were
It's interesting to watch how people change after they have been promoted. I have worked with

people who changed from being easy going and friendly people to becoming pompous and authoritarian. It seems that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they forgot who they once were. The same can sometimes be said for Christians. How some Christians like to look down and sneer at others. They don't want the person with a disreputable past to come to their church or sit next to them. Let us then never forget who we once were. Let us remember God's love for us and extend that to others.

사람들이 승진한 후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나는 느긋하고 친근한 사람에서 거만하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조소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평판이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거나 옆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때 누구였는지 결코 잊지 말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합시다.